

科技總 創立 9周年 紀念式 盛況

防衛產業 視察 · 紀念講演 開催

- ……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지난 9月 24日 創立 9周年 紀念 特別講……○
- ……演會를 갖었다.…………○
- …… 科學技術人의 求心體로 138個 學會 및 會員 團體를 擁하고……○
- ……있는 科技總是 科學技術人에게 주어진 共同課題와 所望……○
- ……을 漸次 解決해 가고 있으며 보다 積極的인 參與와……○
- ……協同으로 總和를 이루고 있다.…………○

一 防衛產業 視察 —

이날 紀念式에 앞서 奉下學會 및 團體代表 60餘名은 金允基 會長의 引率로 防衛產業視察을 하였다.

一次로 國防部 調達本部에 들려 國防을 爲한 諮般 調達業務에 關한 브리핑을 聽取하였으며,

二次로 起亞產業 소하리 공장을 訪問, 各 部署別 工程을 살펴보았다. 이날 視察團은 現地 技術陣과 만나 技術的인 事項에 關해서相互意見을 交換하는 등 國內 生產技術과 能力を 再評價하는 좋은 契機가 되었다.

— 紀念式 盛況裡에 —

科技總 會議室에서 열린 創立 9周年 紀念式은 李昌錫 과기처 차관, 白英鶴 과기처 진흥국장 등 內外貴賓과 團體會員 10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베풀어졌다. 金允基 會長은 이날 開會辭를 通해 「科學技術人의 總和團結로 國家發展에 寄與할 것」을 強調했다.

金會長은 또 科技總이 懸案問題 解決을 爲해 構成한 資源, 重化學, 食糧增產委員會의 活動을

적극화할 것과 防衛產業技術開發을 追加하여 科學技術人은 科學技術의 國力化에 敢智를 總動員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崔亭燮 科學技術處長官은 이날 致辭(李昌錫 次官 代讀)에서 「科技總是 130餘 學會 및 科學技術團體가 參與함으로서 名實 共히 우리 나라 科學技術者를 總網羅하는 團體로 成長하였다」고致賀하고 科技總이 中心이 되어 우리 國內外 科學技術者가 한자리에 모여 國家發展과 直結된 科學技術課題를 討議했던 「科學技術 綜合 심포지움의 成果와 特히 科學技術人의 知識을 全國農漁村에 普及한 새마을 技術奉仕團의 活動이 많은 成果를 얻었다고 격려했다.

崔長官은 「會員團體의 能力의 組織化와 分野間의 協力體制 構築의 重要性」을 強調했고 「科學技術의 힘을 國家發展과 國民生活向上에 이바지하게 하는 科學技術界의 核心的 役割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열린 紀念講演會에서는 孫膺龍 博士의 「食糧增產과 技術開發」, 洪準箕 博士의 「資源 및 科學技術」이라는 演題의 紀念講演이 있었다. 紀念講演이 끝난 후에는 조촐한 小宴이 있었다.